



numbers

vol. 262

한국의 미래 인구(가구) 변화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고독사 실태와 인식
- ②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2024. 11. 1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家口)’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집이란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개념이었으나 2019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유형 중 부부+자녀가구를 제치고 가장 많은 비중의 가구유형이 되면서 가구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위에서 멀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를 발표했는데, 원래 5년 주기로 작성되었지만 최근의 인구·가구 변동 추세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작성주기를 2~3년으로 바꾸었다. 또한 매년 노인의 날(10/2)에 맞추어 고령자에 관련한 통계를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가구 유형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넘버즈는 변화하는 가구의 형태와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 가구 속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에 주목했다. 노인목회나 점점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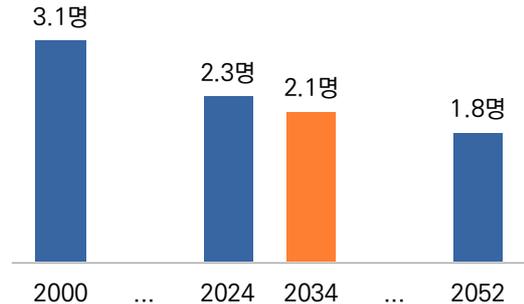
[총가구 및 주요 가구유형] 10년 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2.1명!

-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024년 2,218만 가구에서 2041년 2,43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2년에는 2,328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가구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24년 2.3명에서 10년 후인 2034년에 2.1명으로 감소하고 2052년 1.8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총가구 추이 (가구)



[그림] 평균 가구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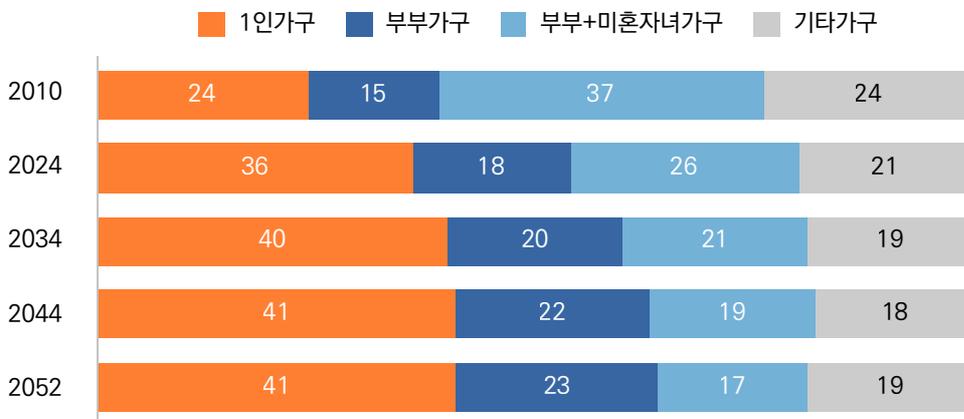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10년 후 한국, 10집 중 4집이 혼자 사는 집(1인가구)!

-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36%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부부+미혼자녀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지만 2019년부터 1인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인 2034년은 10집 중 4집(40%)이 1인가구가 될 전망이며 2052년에는 '1인가구' 41%, '부부가구' 23%, '부부+미혼자녀가구' 17%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 부부+미혼자녀가구의 경우 2024년 26%에서 2052년에는 17%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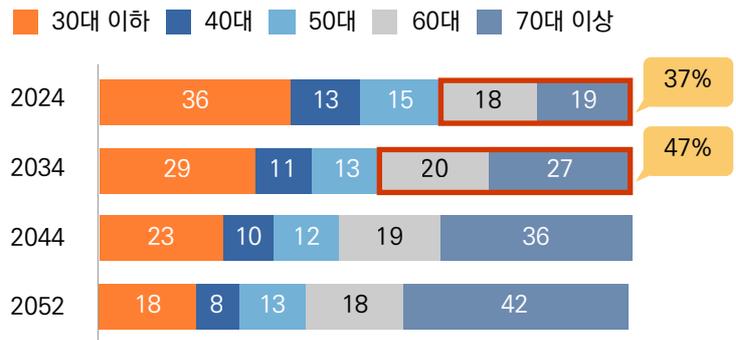
1인가구, 10년 후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

- 주요 가구유형별로 규모와 연령별 비중을 알아본다. 2024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794만 가구에서 2034년 948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율이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현재 30대 이하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2052년은 70대 이상이 42%까지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4년 현재 '60대 이상'이 37%이지만, 10년 후에는 '60대 이상'이 47%로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인가구 규모 예상 (가구)



[그림]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 예상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출처 :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가구의 연령/가구원수별 추계가구'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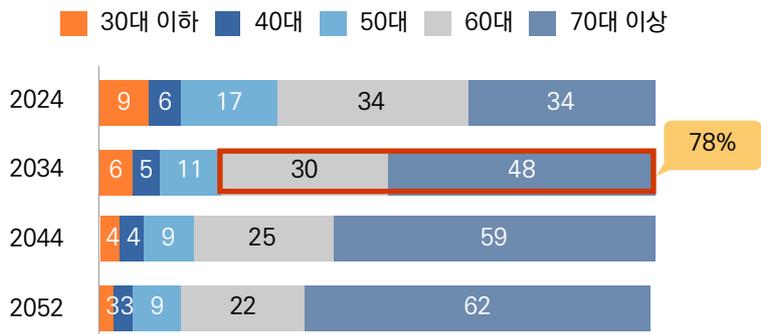
부부가구, 10년 후 10집 중 8집이 60대 이상!

- 전체 가구 중 자녀없이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 규모는 2024년 390만 가구에서 2052년 53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며, 앞으로 10년 간 증가율은 24%로 추정된다.
- 가구주 기준 부부가구의 연령별 비중은 2024년에는 '60대'와 '70대' 가구주가 각각 34%로 가장 많았으나, 2052년에는 '70대 이상' 가구주가 62%로 가장 많아질 전망이다. 2034년의 '60대 이상' 부부가구의 비중은 총 78%로 부부가구 중 10집 중 8집 정도(가구주 기준)가 해당할 전망이다.

[그림] 부부가구 규모 예상 (가구)



[그림] 부부가구의 연령별 비중 예상 (가구주 기준,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출처 : 통계청 국가포털통계, '가구의 연령/가구원수별 추계가구'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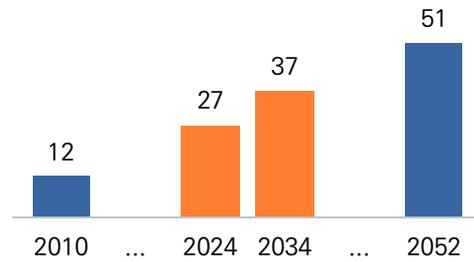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10년 후 절반이상 증가!

- 통계청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를 발표한 이후 이어서 '2024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중심으로 고령자 가구 현황을 살펴본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4년의 고령자 가구는 총 587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 10년 후 고령자 가구는 885만 가구로 현재보다 무려 54%, 즉 절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년 후인 2034년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37%, 2052년에는 전체가구의 절반(51%)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고령자 가구 규모 예상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가구)



[그림] 전체 가구 중 고령자 가구 비중 예상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 통계', 2024.09.26.

한국의 고령자 가구 증가 속도, 일본보다 훨씬 빨라!

- 우리나라의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떨까? 장래가구를 추계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령자 가구 비중은 24%로 '일본'(38%)과 '영국'(30%)보다 낮았지만 약 20년 후인 2042년에는 '일본'(45%)과 비슷한 44%로 예상되며 증가속도는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국가별 고령자 가구 구성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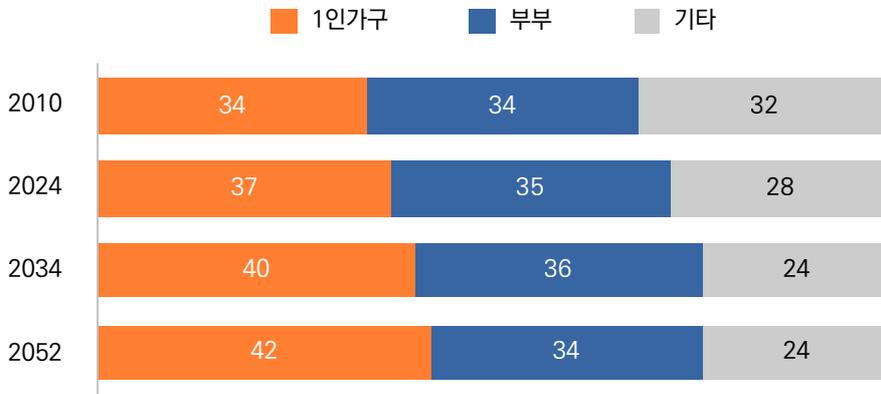


※출처 : 한국: 통계청 2024 장래가구추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24 장래가구추계 (2022년과 2045년 자료임)
 영국: 통계청 2020 장래가구추계
 호주: 통계청 2024 장래가구추계

10년 후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는 홀로 사는 노인!

- 통계청의 이번 '고령자통계'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가 맞물려 '1인 고령자 가구'의 사회적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실제 고령자 가구 중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년 후인 2034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고령자 가구의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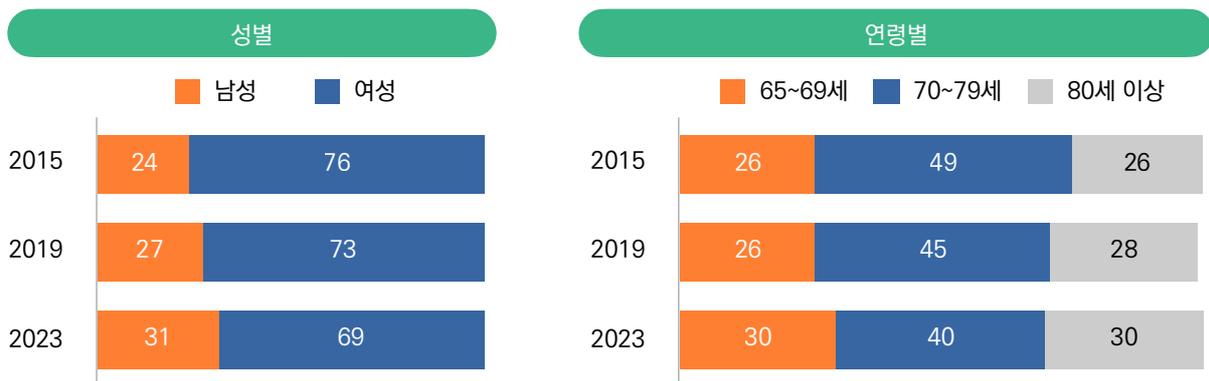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 통계', 2024.09.26.

03

[혼자 사는 고령자 실태] '남성'과 '80세 이상'의 혼자 사는 고령자, 꾸준히 증가!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성·연령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여성'이 69%로 '남성' 31%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비중은 2015년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70대'는 줄고, '60대 후반'과 '80세 이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 성·연령별 비중 (6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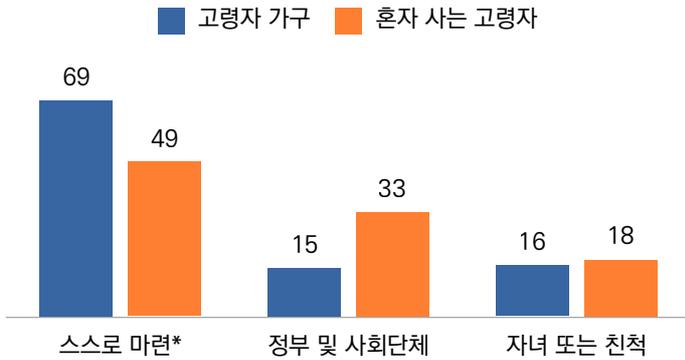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22~2052', 2024.09.12.

혼자사는 고령자, 절반이 생활비 스스로 번대!

- 2023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자녀나 주변 도움없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고령자들의 힘겨운 삶을 엿볼 수 있다.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3명 중 1명꼴인 3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고령자(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림]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2023년, 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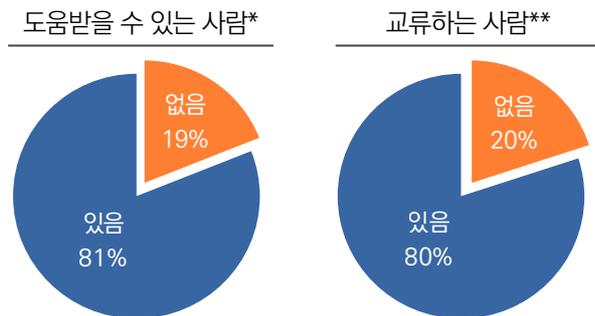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고령자 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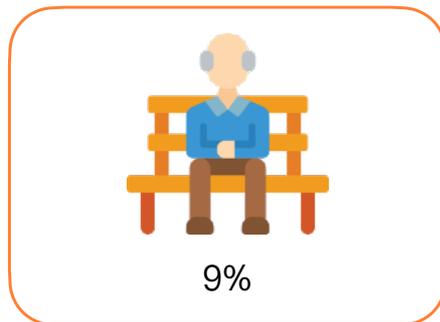
혼자 사는 고령자 5명 중 1명, 교류하는 사람 전혀 없어!

-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 상대 있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 정의했을 때, 그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 또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의사소통 등의 교류가 없는 경우도 20%로 나타났다.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는 9%로 나타나 도움과 교류의 사각지대에 놓인 나홀로 노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2023년, 65세 이상, %)



[그림]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 모두 없는 비율 (2023년, 65세 이상)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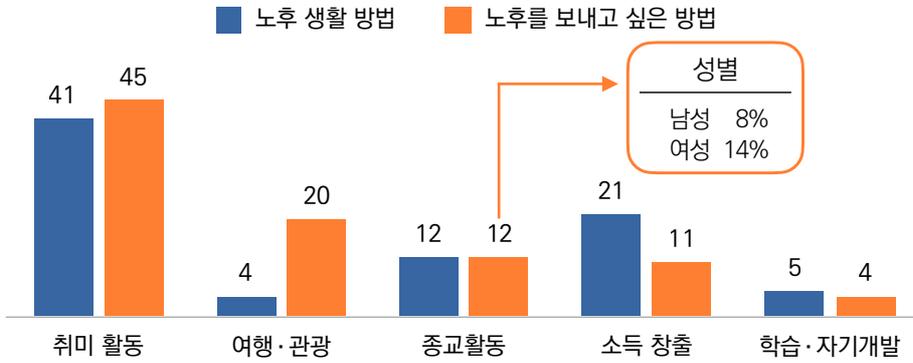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우울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대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가족, 친척, 그 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하는 경우

혼자 사는 고령자의 희망 노후 생활, '취미 > 여행 > 종교활동' 순!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41%), '소득 창출'(21%), '종교활동'(12%)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45%), '여행·관광'(20%), 종교활동(12%) 순으로 나타났다.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종교활동'을 선택한 비율은 여성이 14%로 남성 8%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2023년, 65세 이상, 상위 5위,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고령자통계, 2024.09.26.

이번호 요약

1. 10년 후 한국, 10집 중 4집이 혼자 사는 집!

-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2024년 현재 36%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후인 2034년에는 10집 중 4집(40%)이 1인가구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인가구도 고령화 못 피해! 10년 후 1인가구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인!

-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24년 현재 '60대 이상'이 37%이지만, 10년 후에는 '60대 이상'이 47%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홀로 사는 고령자,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해!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19%, 주변과 교류가 없는 경우도 20%로, 5명 중 1명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1인 가구 1천만 시대의 '명암' (뉴스토리, SBS)
- ▶ [칼럼] 1인 가구 1000만 가구 시대 교회 (가스펠투데이)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68:6)

목회 적용점

TV 예능 프로그램 중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려 10년 동안 장수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젊고 미혼인 연예인들의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다루지만, 현실에서는 1인 가구 중 30대 이하보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건강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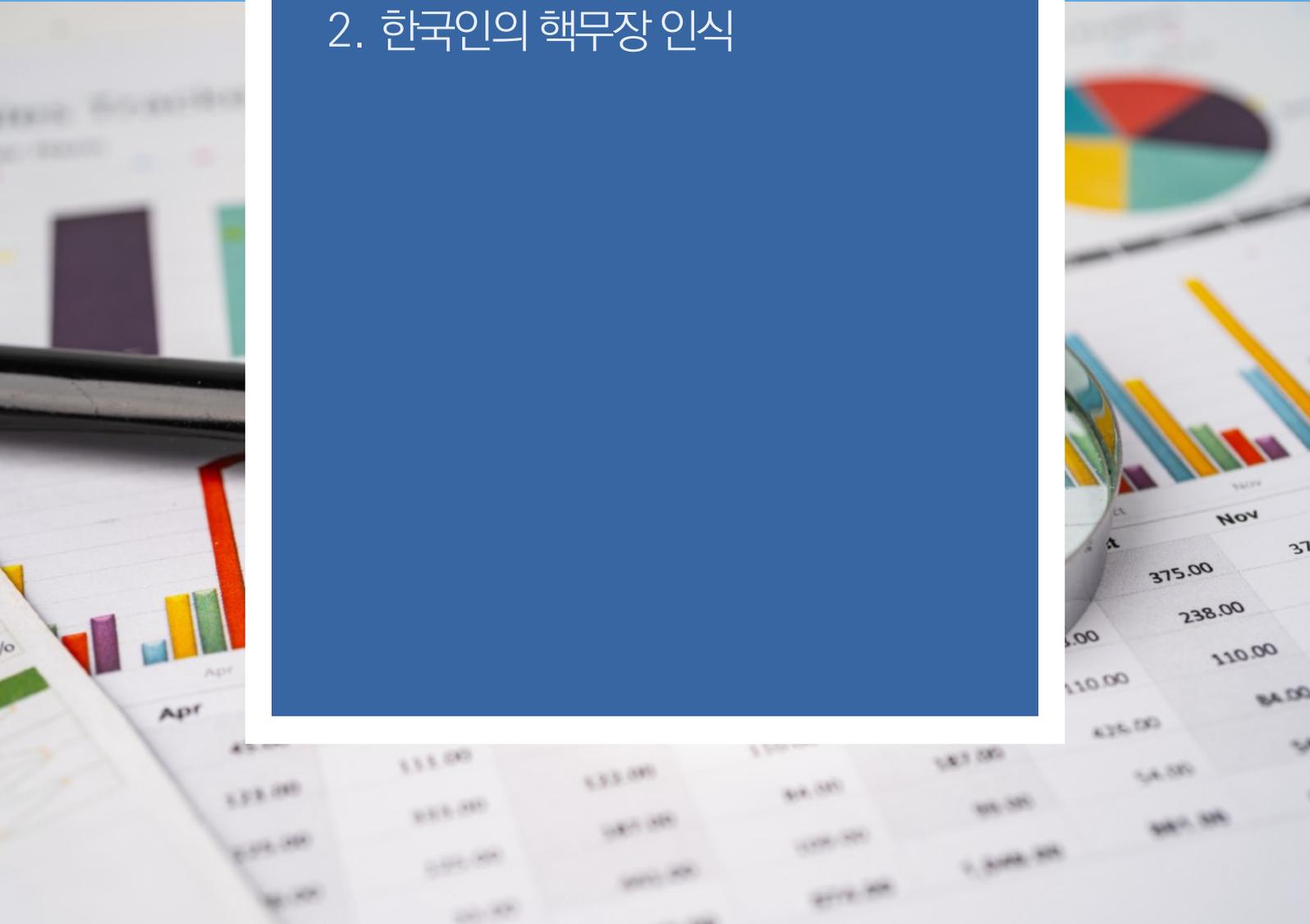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 교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까.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혼자, 미혼자, 이혼·사별자 등 교회 구성원의 삶과 가구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소그룹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소그룹은 이러한 교인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여, 가족이 담당해 온 중요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교회라면 혼자 사는 고령 교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어려움 해결의 창구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고령층일수록 목회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령층에 대한 목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스킨십이 요구된다.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고독사 실태와 인식
2.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고독사 실태와 인식] 고독사 사망자, 남성·5060 비중 높아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다. 최근 고독사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이었고, 남성(84%)이 여성(16%) 대비 5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60세대가 전체의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41%로 나타나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그림] 고독사 사망자 현황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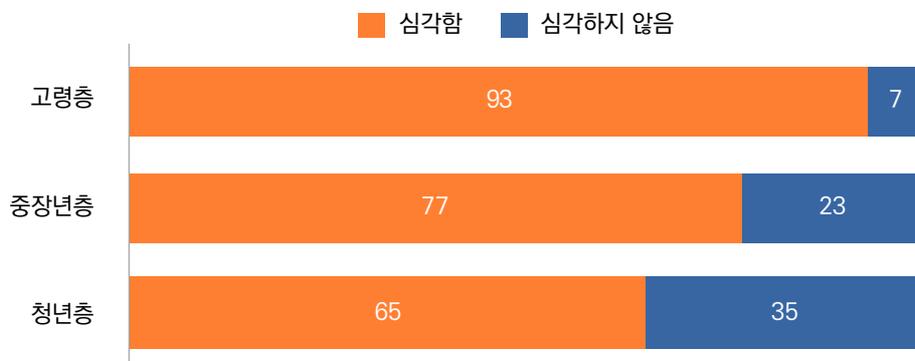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0.18.

우리 사회 고독사 문제 심각성,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아

- 고령층, 중장년층, 청년층 3개 계층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에서 각각의 계층의 고독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한국리서치, 2024.10.) 그 결과, '고령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93%로 매우 높았으나,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각각 77%, 65%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독사가 이제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연령계층에 대한 고독사 심각성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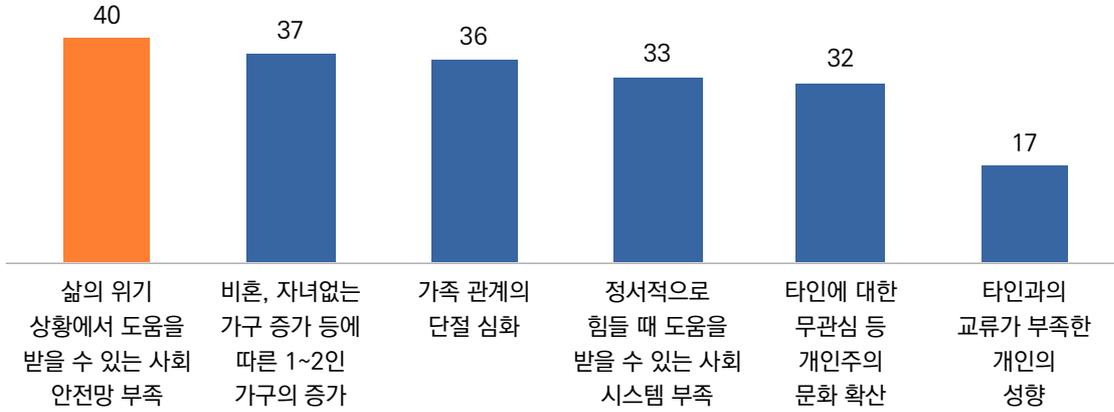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심각함,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음 비율임

고독사의 주요 원인, 사회 안전망 부족!

-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부족'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2인 가구의 증가', '가족 관계의 단절 심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고독사 발생 원인 (1+2순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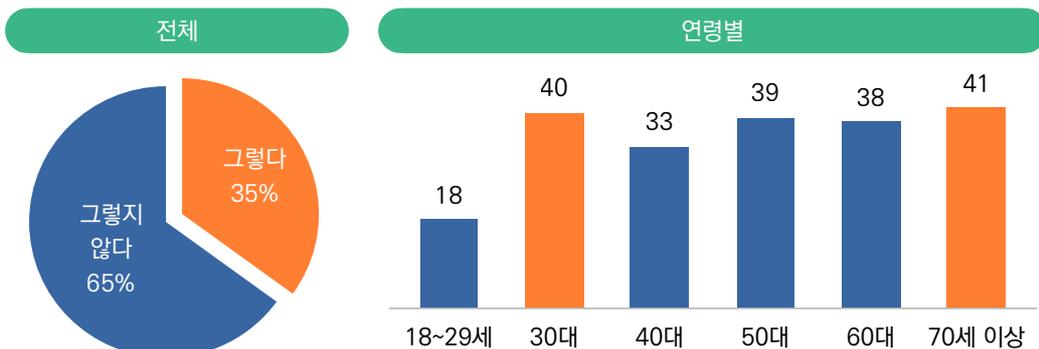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35%), 나는 '요즘' 고독사 할까봐 걱정된다!

-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봐 걱정된다'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40% 안팎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독사가 어느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의 전 세대가 체감하고 있는 이슈로 볼수 있다.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나는 요즘 고독사 할까봐 걱정된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쓸쓸한 죽음, 고독사', 2024.10.30.(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8.12.~08.14.)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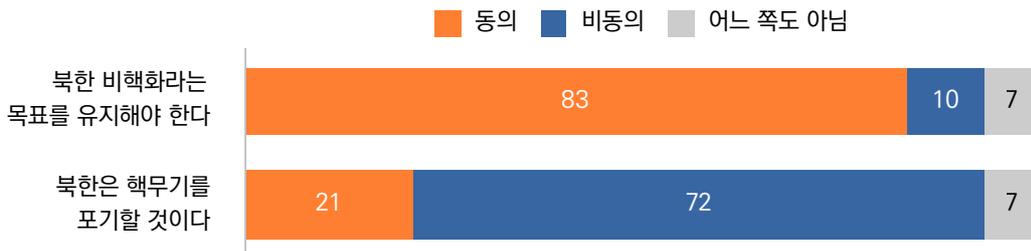


[한국인의 핵무장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한은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의 방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13년부터 매년 한국인의 대미, 대일, 대중, 대북 인식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최근 발표한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북핵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 북핵 관련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 대부분(83%)이 동의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에 21%만이 동의하고 72%는 동의하지 않아 북핵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임을 나타냈다.

[그림] 북핵 및 대응 관련 주장 동의 정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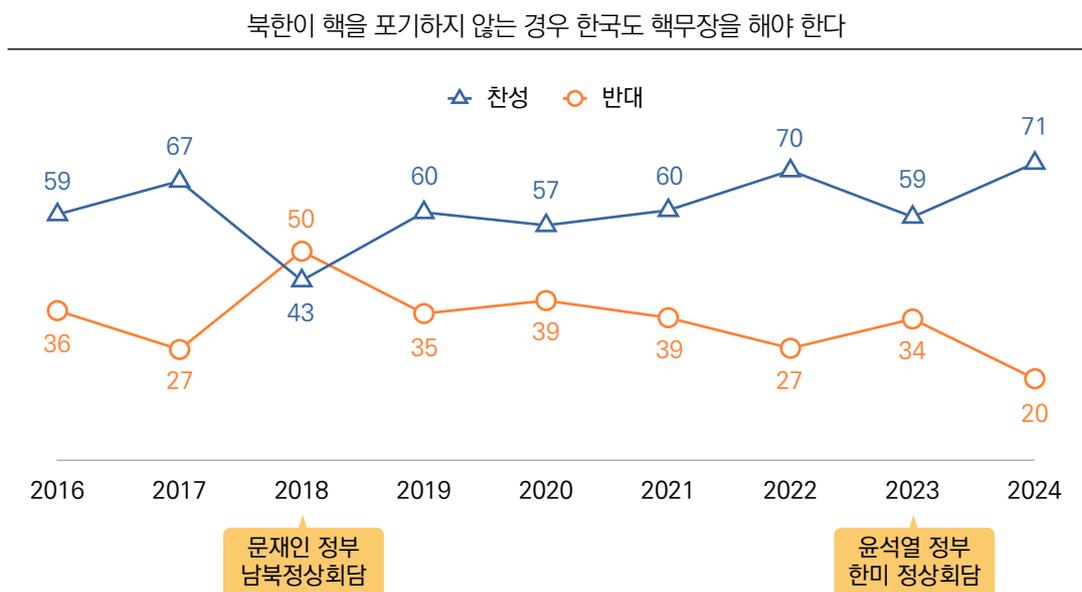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도 핵무장 해야 한다!'

- 우리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다. 이는 이른바 '평창의 봄'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 북한이 총 6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2년 70%까지 올랐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율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워싱턴 선언) 2023년에 59%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그림] 북핵 위협 지속 시 한국 핵보유 찬반 여론 추이*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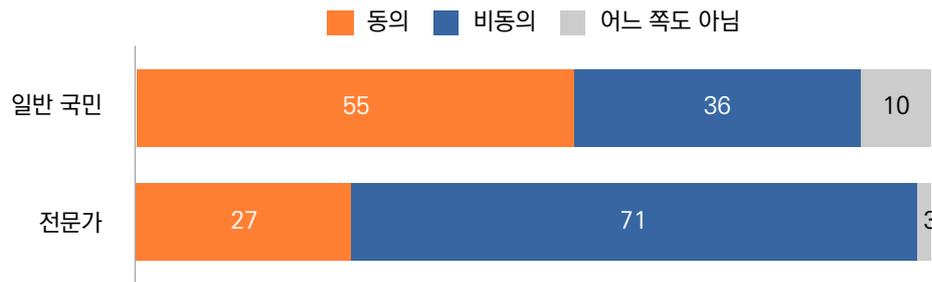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2024.08.26.~08.28.)
*4점 척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 '북한은 필요하다면 남한에게 핵무기 발사할 것'!

-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이외에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자, 언론인,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는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북핵 관련 인식 차이는 어떤지 살펴본다.
- 일반 국민들은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55%가 동의), 전문가 다수는 71%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두 그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다.

[그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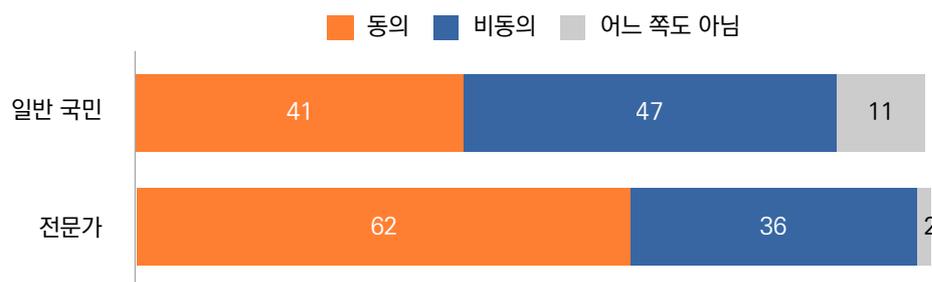
*4점 척도

북핵,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 충분하다: 일반 국민 41% vs 전문가 62%!

-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은 부정적인 인식(47%)이 긍정적인 인식(41%)을 앞선 반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인식(62% 긍정, 36% 부정)이 크게 높았다.

[그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충분성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vs 전문가 (%)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충분하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2024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2024.10.24. (일반 국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전문가: EAI펠로우 학자/언론인/외교관 102명, 웹조사, 2024.08.26.~09.04.)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1호 \(2024년 11월 1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주여 분야별 정책 평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4호 \(2024년 11월 1주\)](#)

- 정책 추진을 잘 할 것 같은 정당,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대한 의견

사회 일반

[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출생아 비중 5.3%](#)

연합뉴스_2024.11.7.

[피붙이 없이 고독사한 노인 재산, 10년간 121억 국고 귀속](#)

조선일보_2024.11.11.

["2050년 혼자 사는 치매의심 노인 119만...8만명은 경제활동"](#)

연합뉴스_2024.11.5.

[살해후 자살 피해아동 70%가 9세 이하](#)

국민일보_2024.11.6.

청년 · 청소년

[\[2024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필요성과 사교육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11.6.

[초등생도 베팅, 판돈 2억 건 고교생... 온라인 도박 절반이 청소년](#)

조선일보_2024.11.11.

[청년 열에 아홉은 "임금·복지 좋으면 기업규모 상관 없다"](#)

연합뉴스_2024.11.5.

[내가 쓸 '자리'가 없어요...이력서 내려놓는 청년들](#)

중앙일보_2024.11.7.

[서울 30대 10명 중 6명 '미혼' 상태](#)

매일경제_2024.11.1.

["졸업해도 백수, 빚만 늘고"...20대 '이것' 3년새 25% 꺾어 떨어뜨려"](#)

매일경제_2024.11.10.

경제 · 기업

[2025년 핵심인재의 3대 키워드... 'AI 리터러시' 'DEI' '업스킬링'](#)

조선일보_2024.1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일방적 정년연장 고령층 정규직만 웃는다](#)

매일경제_2024.11.5.

[MZ 직장인 76% “월급 300만원 이상 희망”](#)

조선일보_2024.11.5.

[기업 10곳 중 7곳 “연공·호봉급제로 정년 연장 시 비용부담”](#)

연합뉴스_2024.11.5.

국제 · 환경

[\[트럼프 재집권\] “미국·중국 양국 국민 90%, 미중관계 우려”](#)

연합뉴스_2024.11.8.

[민주당 텃밭 MZ 세대를 변심…‘먹고사니즘’에 트럼프 찍었다](#)

중앙일보_2024.11.9.

건강

[낮에 졸음 쏟아지는 중장년, 치매 조심하세요… 당장 ‘이것’ 시작해야](#)

헬스조선_2024.11.10.

[자기 병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2030 당뇨 10명 중 3명만 치료받아](#)

중앙일보_2024.11.7.

기독교 · 종교

[\[넘어진 가정, 세우는 교회\], \(국민일보\)](#)

[〈상〉 이혼, 믿음을 흔들다 _2024.10.30.](#)

[〈중〉 목회나 포기냐, 그들의 고민 _2024.10.31.](#)

[〈하〉 스페셜 패밀리 사역 열전 _2024.11.05.](#)

기획기사 : [다문화가 미래다], 연합뉴스

[① 다민족·다문화 사회는 대세…총인구 5.2% _2024.11.10.](#)

[② 체감되는 일상의 변화…공존하는 ‘빛과 그림자’ _2024.11.10.](#)

[③ 전문가들 “新복지 사각지대 해소…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_2024.11.10.](#)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학교,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시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교육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춘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2024 후원 이벤트

2024년 10월 31일~11월 12일까지 후원 이벤트를 통해(정기후원 48건, 일시후원 39건)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

고대원, 고재환, 권병득, 권순민, 김경희, 김사무엘, 김상영, 김석희, 김선우, 김성일, 김성재, 김승용, 김애란, 김요한, 김용식, 김윤규, 김인규, 김인선, 김인철, 김정훈, 김지훈, 김진영, 김진오, 김진훈, 김현모, 김홍삼, 나태열, 남기환, 노 일, 박검섭, 박신우, 박용주, 박주영, 박태성, 반기민, 백윤정, 서경복, 서동열, 송우용, 송준영, 송찬우, 신광순, 신현빈, 심명석, 안진환, 오창균, 유대식, 유승중, 유재윤, 윤홍경, 이경만, 이경선, 이경원, 이기원, 이상신, 이성수, 이성철, 이수규, 이승렬, 이원희, 이재완, 이정규, 이준영, 이지학, 이택준, 이형동, 임양섭, 임창수, 정승기, 정용수, 정제순, 조용민, 주은영, 지다한, 최 선, 최형규, 표대중, 함정아, 허남홍, 홍동호, 홍성대, 홍성필, 홍찬일, 황 환, Shin Kim, ALEX SONU, YON TAEK BAE

